

5월1일경기가 자리잡고 있는 룡라도는 평양의 명승지이다.

알고보니 여기에는 매우 흥미있는 전설이 깃들어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원래 룡라도는 대동강중류인 성천을 관내 비류강에 있었는데 몇백년전 큰 홍수때 평양의 지غم위치에로 떠내려왔다고 한다.

룡라도가 성천땅에 있을 때 땅이 기름지고 옥곡이 잘 자라 근방농민들이 모여들어 큰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런데 농민들의 등팔을 빨아먹는데 이골이 난 성천을 박부사가 오면서 사람들이 삼천을 경내를 벗어났으면 좋겠다고들 말하곤 하였다. 어느해 여름 큰 장마로 하여 비류강은 바다처럼 범람하였다. 이때 룡라도는 비류강의 사물속에서 웅결 움직이더니 삼천체가 배처럼 하류로 떠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캄캄한 어둠속에 표류하는 배처럼 떠내려가던 섬은 청류역에 대동강한복판에 와서 득 뗏었다고 한다. ...

바로 이런 전설이 깃들어있는 섬 룡라도에 하늘에서 내려앉은 은백색의 대형력 하산모양으로 웅장하게 솟아난 5월1일경기장에서 지난 9월 9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첫막이 올랐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속에 공화국기가 오를 때 나의 심중은 그 뒤라 말할수 없는 숭엄함과 뜨거움에 젖어들었다.

공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처럼 황홀한 공연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빛나는 조국》공연, 그것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여온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파시한 공연이라고 나는 말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을 보다(1) 천만이 하나가 된 단결의 나라

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인류문화의 대재보》, 《세계적인 대결작》이라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 행성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하루이틀도 아닌 몇달동안 무더위와 비바람속에서 땀흘리며 온갖 열정, 심신을 바쳐 겨레와 인류에게 그토록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 출연자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조국방문기간에 이 공연을 두번이나 관람하는 행운을 지니었다. 그때 받은 흥분과 강렬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작은 물방울에도 우주가 비친다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는 동방의 신비한 나라로 알려진 조선의 모습이 응축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공연을 보면 조선의 얼굴이 보이고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알수 있다.



하고싶다. 미래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친 공연은 높은 사상성과 독특한 예술적향기를 내뿜으며 모두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체조와 예술의 결합으로 변화무쌍한 황홀경을 펼치는 《빛나는 조국》의 매력은 한마디로 표현할수 없다. 거대한 리체적공간속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우아한

를동과 기백있는 체조, 품만한 민족정적서와 세련된 예술적형상, 천변만화하는 배경대,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색있는 조명, 바닥형상과 공중교예에예술의 유기적결합... 그중 근 2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배경대는 정말로 놀라울것이었다. 이번 공연에서 흥미로운것은 공연시작을 앞두고 진행되는 배경대의 간단한 훈련 동작이었다. 나와 함께 앉았던 동료들과 외국관광객들은 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국제적인 개폐막행사들에서 보아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 계였던것이다. 온 무대가 통째로 살아 움직이는 배경대는 정말로 놀라울것이었다. 이번 공연에서 흥미로운것은 공연시작을 앞두고 진행

이었다. 경기장바닥을 누비며 힘차게 휘날려가는 무수한 기복의 퍼덕임속에서, 천지개벽한 대지로 북소리 등등 울려가고 최첨단들과전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는 공화국의 현실이 비친 화폭들에서 나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봉쳐 승리만을 이룩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끝없는 환희와 방만을 느낄수 있었다.

출연자들이 박자, 룠동, 대형, 지어 호흡과 눈빛마저도 하나의 같이 맞추어 펼쳐는 애국의 신비함, 5월1일경기장의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우며 하늘과 땅에서 리체적으로 벌어지는 특기장면들은 예술적기교이기 전에 마음과 마음, 심장과 심장이 하나로 합쳐져 창조된 영원 불멸할 혼연일체의 화폭인 것이었다.

내일에 앉았던 재미동포도 격정과 흥분에 휩싸여 《정말로 바늘구멍만 한 틈도 없는 완전무결한 작품이다. 잘 짜인 공연은 그대로 복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저런 훌륭한 공연을 세계의 그 어느 나라가 흉내 낼수 있겠는가.》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번 보면 영원히 잊을수 없는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는 《빛나는 조국》공연은 조선민족의 우수성의 상징, 시간의 흐름조차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신비의 무아경, 세계에 기록될 명작이며 조선의 진주보석이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황홀한 화폭은 펼쳐수 있지만 그 화폭과 더불어 산악같은 힘을 새겨안게 하는 진리는 원한다고 하여 누구나 력사에 새길수 있는것이 아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야말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온 세계에 독특히 보여주었다.

재중동포 김희진

이 훈련기재의 설계와 제작을 자체로 하는 과정에 예로도 많았지만 탁구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의 열의를 높여주고 그들의 기술수준을 한계한 끌어올릴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자기 힘을 믿고 제손으로 나라의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이들의 참된 애국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이렇듯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된것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도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공화국의 벽한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제 16 차 전국 조선 옷 전시회장

과학으로 체육강국건설을 추동한다

한데서 매우 효과적인 훈련기재였다. 이 대학의 리철산 체육과학연구소 소장은 대학안의 연구사,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훈련기재를 제작하였다

이 훈련기재를 리용하여 단위시간동안에 교수밀도를 높이고 최단기간내에 기술수준을 빨리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신심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는 이 훈련기재는 어디서나 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적은 원가를 가지고 자체로

능히 만들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단위들에 도입해본 결과 실천속에서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은정구역 청소년체육학교에서 내놓은 이동식탁구공편환 및 측정훈련기재도 많은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기재는 좌우연결결과 속도, 힘, 회전력에 대한 치기기술과 불의에 변화되어 오는 공에 대한 민첩성을 키우도록 하는데 기본을 둔 훈련기재로서 탁구기초기술을 배

우기 시작한 학생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었다. 4개의 목표판에 수감장치를 설치하고 선수가 쳐서 맞힌 목표판별로 그 개수가 수자식표판에 현시되게 함으로써 훈련목표를 정확히 집행하고 선수들의 련결치기의욕을 높이는것과 함께 목표판들의 각도를 임의로 변화시켜 맛고 튀겨나오는 공의 회전과 속도에 따라 선수들의 반응도 발달되도록 하였다. 김광성 은정구역 청소년체육학교 탁구지도교원은

본사기자 김혜성

《고려의학의 경락과 경혈신경도 전자침구모형체계》 개발

— 고려 의 학 연구원 에서 —

고려의학연구원의 의학자들이 고려의학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고려의학의 경락과 경혈신경도전자침구모형체계》를 새로 개발하였다.

이 체계는 크게 고려의학의 경락과 경혈신경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형도판과 침구경혈도의 발전과정과 경혈신경도전자침구모형, 도서 《침구의 현대학적구조와 임상》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경락리론의 과학화를 실현하여 침구의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이 성과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의학인 고려의학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과학자이며 교수, 박사인 김숙영선생과 연구사 전일, 계순남, 강봉식선생들은 현대의학발전에 이바지한 고려의학의 학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고려의학의 경락과 경혈신경도전자침구모형체계》를 개발하여 과학기술전당에 전시하는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고려의학연구원의 의학자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효능있는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 집행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연구사업은 매우 방대하였다. 예로와 난관이 많았지만 이들은 명공이 펼쳐져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명반 추위에도 불구하고 극장문을 열기 2시간전부터 줄지어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모두의 얼굴들에는 남다른 흥분과 격정이 엿보였다. 지나가던 일본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 극장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가고 물었다. 사연을 알게 된 그들은 더욱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사이다마지역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자제로 가족을 만들었는데 이날 첫 공연을 한다는것이였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다양한 형식의 노래와 관현악 등으로 이루어진 음악예술의 가장 큰 형식으로 알려져있다. 대사와 행동은 기본으로 하는 연극과는 달리 시종일관 다양한 형식의 노래들과 관현악, 무용, 무대미술 등 여러가지 예술적수단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속에서 극적내용과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묘사되는 예술형식이 다름아닌 가족이다. 그런데 전문예술인들도 아

민족성을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얼싸》성원들

— 재 일 동 포 사 회 에서 —

민 일반 재일조선인들이 가족을 창조하였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겠는가. 출연자수만도 10살 난 어린이로부터 70대로인 이르기까지 무려 13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가족창조력량의 핵심은 사이다마지역 동포문제협의회 《얼싸》의 성원들이였다. 바로 그들이 대표작으로서부터 시작하여 작사, 작곡, 연출, 지휘, 안무, 무대미술, 기량지도를 맡았다. 하다면 사람들을 놀래우며 가족을 창조한 《얼싸》는 어떤 단체인가. 사이다마지역 동포사회는 대중문화예술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다. 이곳에는 각 지 부마대에 장교소, 무용소 등 많은 예술소조들이 있는데 《얼싸》는 바로 이러한 우수 전통을 가진 지역동포사회의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세계에 예극운동의 요구에 맞게 더욱 힘있게 추동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이다.

에로부터 즐겁고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면 《얼싸》가 흥겨운 춤을 추며 《얼싸》의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

족문화풍속을 반영하여 지은 《얼싸》의 명칭만 보아도 이극장에서 민족성을 곳곳이 지켜가려는 그들의 애국심을 엿볼수 있게 한다.

《얼싸》성원들이 가족창조를 결심한것은 2015년이였다. 악단의 총지휘를 맡았던 동포가 뜻밖에 세상을 떠난 불상사도 생겼고 주단역들의 연기형상이 잘되지 않아 창작자들이 속을 태우는 일도 빈번했다. 그러나 동포들은 서로서로 고무격려하고 지혜를 합쳐가며 피라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가족을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 이 가족은 사이다마현의 어느 소도시에서 사는 한 동포가정에 생활을 소재로 하고있다. 일제기 때를 잃고 어렵게 사는 속에서도 민족의 넋을 지켜가려는 너주인공, 어린 외동딸을 통학시간이 무려 2시간이나 걸리는 조선 학교에 주저없이 보내며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그를 비롯한 동포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 자아였다.

동포사회 그 어느곳에서 본사기자 김희진